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헝클어진 '올림픽과 일본'의 인연

바이러스 위세 앞에 올림픽도 주저앉고 말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지난 24일 전화통화로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2020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정부와 IOC 간에 오간 구체적인 논의는 알 수 없지만 아베 총리가 연기를 요청하고 바흐 위원장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와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수그러지기를 기대하며 올림픽의 올해 개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따라서 올림픽 연기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IOC위원장에게도 딱딱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2020올림픽에 정치적 의미를 많이 걸었던 아베 총리에게 쓴맛을 안겼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깜짝 출현했을 정도로 올림픽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집념은 유별했다. 아베 총리가 올림픽에 담은 기대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실추된 '안전한 일본'의 이미지를 되찾고 잃어버린 20년이란 딱지가 붙은 일본의 장기침체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국민적 희망을 채워주고, 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성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은

개인적 야망이 있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올림픽 발목을 잡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올림픽 경기는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에 의해 1916년, 1940년, 1944년 등 3차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이 전염병에 의해 연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조짐은 있었다. 모기가 옮기는 Zika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2016년 리우올림픽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사실 2020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3월 초부터 분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탈리아를 감염상태로 마비시키면서 유럽으로 번지고 미국 및 캐나다의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요 스포츠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스포츠는 경기 특성상 선수 간 접촉과 수많은 관중이 밀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본 여론도 연기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17일 일본국민 63%가 "올림픽을 연기하는 게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유권자 69%가 연기는 게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런 국제적 위기의식과 일본 국민의 우려에도 7월 개최에 매달린 아베총리의 행동은 정치적

의지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다는 아집 같은 게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올림픽 취소가 아니라 연기로 결정된 것은 아베 총리와 바흐 IOC위원장의 이해관계, 수년간 기량을 닦으며 준비했던 선수를 포함한 세계 올림픽 가족들의 기대, 개최국으로서 긍지와 기대를 걸었던 일본국민들의 열망, 올림픽에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들의 준비 등이 올림픽의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1964년 동양 국가로는 처음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렇지만 일본과 올림픽의 관계는 그 역사가 꽤 길고 험난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경기가 열린 이래 근대 올림픽은 서유럽과 미국, 즉 백인 사회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일찍이 서양문물에 경도되었던 일본은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올림픽 유치에 1930년대부터 애썼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말로 포장된 세력 확장 정책이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될 무렵이었다.

일본은 1940년 올림픽 유치를 놓고 파시스트 국가 이탈리아와 경쟁을 벌였다. 막판에 무솔리니가 유치경쟁을 포기하자 1936년 IOC 위원회는 일본에 개최권을 부여했다. 일본국민이 자존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1936년 히틀러의 개막선언으로 열린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의 선전장이자 인종주의가 판쳤고, 이에 경악한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1938년 일본이 촉발한 중·일 전쟁을 쟁점 삼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본에서의 올림픽개최가 서양의 간섭행위라고 생각하는 일본 민족주의자들까지 생겨났다. 1938년 일본정부는 자원을 중·일 전쟁에 투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대고 갑자기 올림픽개최를 취소했다. IOC는 일본이 포기한 올림픽 개최권을 핀란드의 헬싱키에 부여했지만 개막을 몇 개월 앞두고 소련이 핀란드를 점령하면서 헬싱키올림픽도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꿈을 1944년 이뤄졌고, 당시 도쿄올림픽은 2차 대전 패전의 잿더미를 딛고 국제사회에 일본을 알리는 도약대가 됐다. 한국인들 중에도 당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경기 실황을 라디오 중계로 들으며 응원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을 것이다. 당시 한국에게 올림픽 개최는 먼 나라 얘기였다. 그러나 24년 후 서울을 올림픽을 열었고, 다시 20년 후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렇게 세계는 변한다.

지금 바이러스 앞에 세계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노골적인 국가이기주의가 판치는가 하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휴머니즘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여러모로 달라질 것이다. 준비된 올림픽을 1년 후 개최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도쿄올림픽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 社 說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별도 사전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인 총선 당일 본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유권자라면 평일과 주말이 하루씩인 사전투표일을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큰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어서 사전투표의 효과와 가치가 더욱 커졌다. 투표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나 엄격한 방역 절차 때문에 투표장 가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우려와 혼잡을 피해 여유 있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소 내 감염을 걱정하는 방역 당국의 고민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여론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

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는 일도 속출하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적극적 투표 의향이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스스로 정치 혐오나 무관심을 부추기는 듯한 일을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는 비(非)민주, 반(反)민주라는 악성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해주는 면역 세포와 같다.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인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의료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이 최선

비브리오균에 의해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을 통한 피부 상처로 대부분 감염된다. 사망률이 50%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감염 후 잠복기는 대개 1~2일 갑작스런 오한, 발열, 피로감, 근육통 등으로 시작하여 일부에는 설사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긴질환, 알

코올 중독 만성질환자와 같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패류 생식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병의원 방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법으로는 어패류 생식 삼가고, 85°C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먹어야 한다. 바닷물에 들어 갈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닷물에 작업시 반드시 장화 고무장갑 등과 같은 보호 장비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황신욱

###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